



즉시 배포용: 2024년 6월 2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2년 간의 검토를 거쳐 최종 기관간 폭염 행동 계획 공개

기관간 계획은 소외 지역사회의 폭염 피해에 대응하고 뉴욕 주민의 건강 피해를 해결하겠다는 주지사의 시정연설 내용 추진

주정부 기관은 지난주 폭염 발생 전 일부 권고 시행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폭염 행동 계획(Extreme Heat Action Plan, EHAP)을 공개하여 2022년 시정연설(State of the State)의 공약을 지켰습니다. 해당 시정연설에서 주지사는 뉴욕 주민, 특히 폭염으로 인해 건강과 복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외 지역사회 주민들의 폭염 피해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가 계획 수립을 주도했으며, 기관간 협력을 조정하고 빈발하고 극심해지는 지역의 폭염 피해를 완화하는 한편, 주정부가 우선적으로 폭염 피해 최전선에 있는 소외 지역사회를 고려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지난 주 직접 목격했듯이,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 빈발하면서 많은 뉴욕 주민, 특히 비백인 지역사회와 소외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과 생계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폭염 행동 계획은 취약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폭염으로 인한 위험에 전면적으로 대응합니다.”

2022년 Hochul 주지사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와 뉴욕주 에너지 연구개발청(New York 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NYSERDA)에 기후 변화로 인해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폭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폭염 행동 계획(EHAP)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HAP 워킹 그룹(Work Group)에 참여한 주정부 기관 25곳 이상은 지역사회 파트너와 플래너, 적응 전문가, 지역 정부 지도자,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소외 지역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여 폭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단기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증거 기반의 계획을 수립하여 폭염 대응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DEC와 NYSERDA는

Community Advisory Panel과 Scientific Advisory Panel을 소집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환경보존부 임시 커미셔너인 **Sean Maha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 환경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환경 오염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환경 오염 노출이 많은 지역사회에서 심각한 공중 보건 결과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DEC는 NYSERDA를 비롯한 수십개 주정부 기관, 이해관계자들이 폭염 대응 전략 및 솔루션을 수립했습니다. 폭염 행동 계획을 통해 DEC는 우리 지방 및 주정부 파트너, 의회,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폭염과 기후 변화에 계속 대응하는 한편, 뉴욕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NYSERDA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Doreen M. Harri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더운 날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폭염 행동 계획은 전략적 협력을 통해 뉴욕이 더위 피해에 취약한 뉴욕 주민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NYSERDA는 환경보존부를 비롯한 연관 기관에 협력하여 주지사의 기관간 행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탄력성을 높이고 냉방 센터 접근성을 확보하는 길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소외 지역에서 에너지 비용과 냉방 장비 비용을 줄입니다.”

EHAP은 주정부 주도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과 권고안 49개를 제안했고, 이는 더위 취약성을 높이는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고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이 받는 불공정하게 높은 피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비백인, 원주민, 실내외 근로자, 고령자, 청년, 임산부, 당뇨와 심장병 등 만성질환자, 장애인, 특정 약물 복용자, 사법 정의 관련자, 이민자, 주거 불안정 또는 언어 불편을 겪는 사람 등이 폭염에 가장 취약한 인구 계층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계획은 지방 지역사회에 기술을 지원하는 솔루션 추진, 불평등 및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천연 기반 솔루션 확대 실시, 자택과 공공 공간의 냉방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 보호 등을 추진하여 공정하게 폭염에 적응하도록 하는 노력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DEC의 폭염 웹사이트 [여기](#)에서 폭염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안은 네 개의 액션 트랙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폭염 사태 적응을 지원합니다.

- **액션 트랙 1: 적응 계획 및 시행(Adaptation Planning and Implementation)**은 지역사회의 폭염 피해 대응 계획 수립과 적응 정책 조정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트랙의 목표는 지방 지역사회가 지역의 역량 또는 능력을 강화 및 지원하여 보건 및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공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추가 지역 계획 및 조정, 지역 커뮤니티 탄력성 네트워크 수립, 최전선 지역사회와 학교, 원주민, 기타 피해 인구와의 협력 증진 등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액션 트랙 2: 대비와 소통, 근로자 안전(Preparedness, Communication, and Workers' Safety)**은 폭염 전후에 근로자를 비롯해 뉴욕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언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해당 트랙은 지역 및 지방 폭염 비상사태 계획, 냉방 센터, 안전한 수영, 비상 쉼터, 분명한 공지 발송 등을 포함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반적 보건, 복지, 탄력성을 증진합니다.

- **액션 트랙 3: 건축 환경, 인프라, 공간 관리(Built Environment, Infrastructure, and Managed Spaces)**는 탄력적이고 안전한 인프라와 건축 공간을 지원합니다. 해당 트랙의 목표는 건축 환경을 만들고 지역사회 생존과 관련된 인프라를 강화하여 고온을 피하고 도심 열섬 현상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계획은 에너지 비용과 냉방 장비 비용을 줄이고 건물의 온도 탄력성과 기후 적응, 탈탄소화의 속도를 높이는 등 실내외에서 공평하게 적정 온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합니다.
- **액션 트랙 4: 생태 기반 적응(Ecosystem-Based Adaptation)**은 생태계 서비스 혜택과 천연 기반 솔루션을 보호하고 강화하여 더위에 적응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해당 트랙은 생태계, 생물다양성을 보호 및 강화하며 모든 뉴욕 주민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지원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행동 계획은 도심 및 지역사회 삼림 보호, 친환경 인프라의 생태계 및 지역사회 혜택을 극대화하는 모범관행을 수립하며 식물 및 삼림 전문가를 육성하고 폭염 적응을 돕는 나무와 씨앗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합니다.

계획의 실행을 위해 연방과 주, 지역 파트너간의 효과적인 소통, 조정,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EHAP 워킹 그룹에 참여한 주정부 기관은 정기적으로 모여 실행 노력을 조정하고 주정부 기관과 각종 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시민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고려해 통합하기 위한 실행 위원회를 마련합니다.

DEC와 NYSEERDA는 폭염 행동 계획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는 두 번의 웨비나를 [7월 9일 오후 2시부터 3시](#) 그리고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7시](#)에 진행합니다. 웨비나에서 DEC와 NYSEERDA가 계획을 소개하고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DHSES), 뉴욕주 보건부 등 주정부 기관이 이에 참여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알리고 연관 주정부 이니셔티브와 더위 관련 보건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폭염 행동 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DE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 커미셔너인 **Jackie Br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 뉴욕주에서는 폭염이 발생했고 이것은 여름의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선도적으로 이번 계획 수립을 지시했고 비상 운영팀은 이미 권고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폭염은 미국 내에서 기후로 인한 사망요인 중 1위입니다. 허리케인과 홍수, 겨울 폭풍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처럼 폭염 피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인 **James McDonald**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과 이로 인한 뉴욕 주민이 받는 건강 상의 피해를 우리가 느끼는 가운데, 폭염은 새로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기관간 접근법은 지방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특히 취약 인구 계층을 위해 고온으로 인한 건강 상의 피해를 완화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더위 뿐 아니라, 습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 전역이 폭염에 고통받는 가운데, 경보와 주의보를 확인하고 소셜 미디어에서 기관을 팔로우하고 더위와 대기 질 인덱스를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고 수분을 섭취하며 취약한 가족과 친구, 이웃의 안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폭염 대응을 위해 2022년 6월에 공개된 [임시 권고안](#)에 포함된 내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급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행안에 집중하는 한편, EHAP 워킹 그룹은 장기적인 협력을 시행하여 폭염 및 이로 인한 구조적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수립했습니다. DEC는 또한 뉴욕 주립 대학(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Colleg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Forestry와의 양해각서 협상의 최종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협력을 통해 뉴욕주 전역의 폭염 지도를 만들고 현재 및 미래 기후 조건에서 토양 사용 변화와 폭염 완화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DHSES가 주도하는 폭염 비상 사태 대응 조정과 함께 진행됩니다. DHSES는 EHAP 워킹 그룹의 구성원으로, 2023년 6월 [폭염 관련 부속 문서를 State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Plan](#)에 추가했습니다.

올해 여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뉴욕주 기관은 뉴욕 주민이 폭염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폭염 피해를 완화 및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안전 팁 등을 따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